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 탐색과 유용성 연구

최 송 미[†]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

연 문 희

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암시적 이론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표현되는 사회적 유능성의 예언행동을 통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 78명, 대학원생 20명, 상담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특성을 수집한 후, 14개 대학교의 1,7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잠재적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유능성은 주도성, 독립성, 민감성, 사교성, 온정성, 자율성, 개방성 7개의 요인으로 명명되었고, 7요인 모형의 교차타당도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모형을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권장되는 임계치를 만족시켰다. 사회적 유능성의 7개 요인은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고, 우울, 불안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문화에서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 탐색의 시사점과 대학생의 상담현장과 생활지도에서의 예방적 개입의 의미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사회적 유능성, 암시적 이론의 접근법,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최송미는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연문희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최 송 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전화 : 016-850-2688, E-mail : songmi@yonsei.ac.kr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은 인간발달에 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가속화되어 이로 인한 인간소외의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은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지니고 또래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개인의 성인 이후 적응을 잘 예언해 주고(Hartup, 1983; Parker & Asher, 1987), 낮은 사회적 유능성을 지닌 사람들은 주의력장애나 품행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정신병리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Cowen, Person, Babigian, Izzo, & Trost, 1973; Vaughn, Hogan, Kouzekanani, & Shapiro, 1990). 특히 확장된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만성적으로 외로움이 쌓일 경우 우울, 불안, 욕구좌절, 소외감 및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후 발달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권석만, 1995; Muuss, 1986; Parker & Asher, 1987).

효율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경쟁적 사회환경(연문희, 2000),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 급속한 핵가족화와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형제관계의 감소(이은혜, 고운주, 1999), 철저한 사생활의 보장으로 선호되는 대학가의 '원룸(one-room)'풍조 등은 타인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다양한 전자매체의 발달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자아중심성향(egocentrism)을 조장하기 쉽고 사람들 사이의 접촉의 질을 피상적으로 만들어 깊이 있는 친밀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볼 때,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와 학벌 지향주의 사회풍토는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커다란 입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든다(이미리, 1995; Sung, Lubin, & Yi, 1992). 이는 한편으로 청소년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대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보상기회를 박탈한다(문은영, 윤진, 1994). 따라서 대학에 들어와서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해가고 독립성을 획득하는 노력을 하며 대인관계를 넓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에는 예기치 못하였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박현순(1999)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대학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들이 호소한 문제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기복이 있었지만 친구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1989년 34.0%에서 1999년에는 44.8%로 증가하여 학업 및 진로문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윤자(2002)의 연구에서도 2000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대학 상담소를 방문한 431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담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14.7%가 교우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문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역시 학업 및 진로문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1973년에 McClelland은 이미 반세기 이상 연구 대상이 되어온 '지능'은 개인의 실제적인 유능성(real competence)을 대체하지 못하며, 단순히 '지능'만으로 한 개인을 완전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어떤 활동의 성과와 관련된 능력개념으로 지능(intelligence)보다는 실제성과 직결되는 유능성(competence)을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도 학문 지향적인

지적능력은 개인의 삶에서의 성공(혹은 적응)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며, 성격특성이나 사회적인 유능성과 같은 다른 실제적인 능력들이 더 나은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Epstein & Meiler, 1989; Wagner & Sternberg, 1985, 1986).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들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으며(Mathur & Rutherford, 1996), 연구자에 따라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이나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적응개념’으로 보거나(Zigler & Trickett, 1978), 책임감, 지배적 성향, 외향성과 같은 ‘인성구조’로 보거나(Baumrind, 1973), 사회적 대상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대인관계기술’로 보거나(Cegala, Savage, Brunner, & Conrad, 1982), 임상장면에서 개입과 훈련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기도 하였다(Riggio, 1986, 1989). 이렇듯 다양한 이론적 측면으로부터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부모,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대상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회적 유능성의 기본내용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치를 보았다(Ford, 1982; Zigler & Trickett, 1978). 동시에 개인에 따라 지각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사회적 행동(타인과 정서를 공유하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보편적인 것이며 사회적 유능성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Anderson & Messik, 1974; Schneider, 1992).

1992년에 Schneider는 미국에서 9명의 대학생과 16명의 심리학자를 대상으로 문맥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 사회영역에 걸쳐 자신이 믿고 있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내용을 34명의 심리학 수강생들이 범주화하는 작업과 통계분석과정

을 거쳐 72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유능감 설문지를 만들었다. 이 설문지를 다시 302명의 학부생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능성이 단순한 성격특성이나 대인관계기술이 아닌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개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성은 타인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타인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함(warmth)’,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행동규칙을 알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사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 타인을 따르게 하는 리더로서의 본능을 나타내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 상호작용을 잘 하며 낙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외향성(extraversion)’, 타인과의 차이를 위협적이지 않은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개방성(social openness)’,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하여 장벽을 깰 줄 알고 신뢰로운 친구 관계를 만드는 ‘우정관계의 형성 및 유지능력(ability to form & maintain friendship)’, 자기인식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성숙도(social maturity)’, 타인의 느낌과 동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타인의 반응을 예상할 줄 아는 ‘사회적 통찰(social insight)’ 등 8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연구자는 비록 개인차 접근(individual-difference approac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의미를 탐색하였지만 사실상 암시적 이론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대학생과 심리학자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능성의 의미를 탐색해내는 연구였다.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기나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구순주, 1996; 김경희 1999; 노명희, 1995; 정영숙, 199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대학생들의 사회적 유능성의 의미탐색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구성요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유능성을 평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Schneider, 1992)를 한국 대학생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은 실제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개념은 시, 공간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닌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머물고 있는 사회의 특성과 문화 및 가치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황혜정, 김경희, 1999). 따라서 각 사회나 문화마다 이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사회나 문화체계 속에서도 사회적 유능성은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Forster & Ritchey, 1979). 최근 문화심리학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지, 정서, 동기 등 심리적 과정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Triandis, 1989), 기존 심리학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밝혀진 많은 원리들이 실제로는 서구의 고도로 개인 중심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문화 특수적인 것일 뿐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조공호, 1996에서 재인용).

‘문화는 우리 모두가 속한 주물들로서 생각지도 못한 무수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Hall(1959)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특성은 특히 시대, 사회, 문화, 종교적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지적인 영역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와는 달리 통(通)문화적 기준(transcultural standard)을 만

들기가 어렵다(Strigler, Smith, & Mao, 198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개념을 선정하여 각 문화권 별로 문화 특수적인 평정기준을 개발하여 각 문화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조공호, 1996).

주어진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암시적 이론을 알아보는 것이 상황적 맥락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Sternberg, Conway, Kotron, Bernstein, 1981)라고 볼 때, 암시적 이론의 접근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성의 특성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잠재적 요인구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분석의 틀로 삼지 않았고, 암시적 이론의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이해를 경험, 분석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은 귀납적으로 수립한 결과이다.

사회적 유능성의 잠재적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추출한 요인의 타당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세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사회적 유능성 특성 기술 및 내용타당도 분석 단계로 암시적 이론의 접근방법에 따라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능성의 특성들을 목록화 하고 나서 전문가의 두 차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예비 연구용 사회적 유능성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자기평가를 통한 사회적 유능성 문항 선정 단계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사회적 유능성 평정문항을 이용하여 두 차례의 예비 연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문

항변별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문항을 축소, 수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교차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구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 탐색의 시사점과 대학생 상담과 생활지도에서의 응용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1. 사회적 유능성의 특성 기술 및 내용 타당도 분석

방 법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O 대학의 남녀 대학생 78명, 교육학,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20명, 상담관련분야 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대학 상담소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의 상담심리사)20명이 참여하였다.

절차 및 분석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개발은 암시적 이론의 접근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인관계를 잘 하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및 특성’을 기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개념을 찾아내어 목록화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응답자가 인위적으로 응답을 만들거나(fabrication), 평소에 느꼈던 것에서 이탈하여 지적(intellectualization)이거나 논리적인 응답

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거나, 구체적인 특성을 추상화하여(abstraction) 응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경험을 준거로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 주변에서 대인관계를 잘 하는 친구를 머리 속에 떠올려 보라고 지시한 후 (2) 그 사람이 사회적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이밖에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문항수에 구애받지 않고 떠오르는 특성들을 모두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전문가들은 10개로 제한하여 기술하게 하였다.

결 과

문항기술에 참여한 학부생 78명은 총 749개의 특성을 기술하였고, 20명의 대학원생(응답지 회수 16부)은 225개의 특성을, 20명의 전문가(응답지 회수 16부)는 105개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특성은 합계 1079개였으나, 일차적으로 기술내용이 중복되거나, 서술이 불분명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분명한 성 차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응답할 수 없으며 오해를 줄 수 있는 문항(예: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운다’, ‘신체접촉을 잘 한다’)등은 제거하고 314개 문항을 남겨 두었다. 다음 절차로 314개의 문항을 재분석하면서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중복문항을 제외시키는 2차 분석작업을 실시하여 최종 163개의 문항이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문항 원집합(item pool)이 되었다. 한편, 예비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항 원집합의 내용들을 모호한 부사의 사용은 피하고, 가능한 구체적 행동 특성으로 기술하고,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며, 이중부정을 피하는 등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1인칭 형식의 설문문항으로 변화시켰다.

초기선별과정을 거친 문항 원집합을 대상으로 해당 문항이 사회적 유능성을 알아보는데 적절하고 타당한 문항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 명의 상담심리전문가와 3명의 상담심리사와 함께 외국의 선행 연구결과를 기초하면서 문항 원집합 속에서 비슷한 특성을 기술하는 문항들은 같은 내용을 뜻하는 문항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요인 내에 포함시키고 가상의 요인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결과 163개의 문항들은 온정성, 주도성, 사교성, 개방성, 친구관계 유지 능력, 자율성, 사회적 적절성, 민감성, 적절한 거리감 유지 등 9개 가상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9개 요인으로 범주화된 163개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5명의 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5명, 대학상담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인 상담심리사 5명)에게 해당 문항이 사회적 유능성 측정으로의 적절성 여부, 해당 문항 분류 결과의 적절성 여부, 요인의 의미와 요인명 부여의 적절성 여부, 문장표현의 수정 혹은 난해 여부를 분석하도록 의뢰하였다. 두 차례의 내용타당도 분석과정을 거쳐 온정성, 사교성, 주도성, 개방성, 자율성, 민감성, 독립성의 7개 하위영역에 116개 문항으로 일치율을 보았다.

재 ㄴ 대학, 경기도 소재 ㄹ 대학, 대전 소재 ㅎ 대학, 강원도 소재 ㅊ 대학의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예비조사는 서울 소재 ㄱ, ㄷ 대학, 충청도 소재 ㅋ 대학, 경기도 소재 ㆁ 대학, 경상도 소재 ㆑ 대학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도구

상담전문가 집단의 두 차례 내용타당도 평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1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유능성 평정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차 예비연구용 질문지를 작성할 때 각 하위 영역별 문항들을 혼합하여 임의로 배치하였으며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적절히 섞어서 배치하였다(긍정문항 77문항, 부정문항 39문항). 응답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들에게 “평소에 행동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응답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개인은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1차 예비연구를 통하여 선정된 평정문항을 2차 예비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절차 및 분석

300명의 대상자들의 1차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SAS 프로그램을 이용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분석의 일환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사회적 유능성 측정문항에는 공통분산 뿐만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모형을 채택하였다. 공통분산의 추정치로는 다중상관 계

연구 2. 자기평가를 통한 사회적 유능성의 평정 문항 선정

방 법

대상

1차 예비조사는 서울 소재 ㄹ 대학, 충청도 소

곱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사용하였으며,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 단일주축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방법을 사용하였다. 2차 예비연구에서는 1차 예비연구에서 추출한 88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1차 예비연구와 동일하였다.

결 과

1차 예비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유효한 요인으로 할 경우 모두 22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7과 요인8의 고유값이 차이가 0.44 하락한 것에 비해 요인8과 요인9의 고유값의 차이는 0.17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8부터는 평준화 대열에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은 공통요인분석에 의한 단일주축분해 결과로 얻은 고유값과 누적분산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단계로 요인수효를 7개, 8개, 9개로 각각

지정하여 요인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스크리 검증, 해석가능성을 결부시켜 본 결과 요인의 수효가 7개일 때 전문가의 내용타당화 과정을 거쳐 추출한 결과와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각 하위요인 문항-총점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가 .30이하인 문항은 문항 변별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척도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 하위영역 총 88문항으로 2차 예비연구 문항이 구성되었다.

2차 예비연구에서도 동일하게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요인간 상관관계분석,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한 결과 최종 7개 하위영역에 총 59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유능성 평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연구 3. 사회적 유능성 문항 타당도 검증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

표 1. 1차 예비연구에서 고유값과 누적분산비율

축소상관행렬의 고유값 총합: 82.86 (전체공통분산)						
요인번호	1	2	3	4	5	6
고유값	20.17	6.89	5.81	4.44	3.11	2.79
고유값 차이	13.27	1.08	1.37	1.32	0.33	0.24
분산비율	0.24	0.08	0.07	0.05	0.04	0.03
누적분산비율	0.24	0.32	0.39	0.45	0.49	0.52
요인번호	7	8	9	10	11	12
고유값	2.54	2.10	1.94	1.71	1.69	1.57
고유값 차이	0.44	0.17	0.23	0.03	0.12	0.12
분산비율	0.03	0.03	0.02	0.02	0.02	0.02
누적분산비율	0.55	0.58	0.60	0.62	0.64	0.66

방 법

대상

이 단계에서는 서울 소재 71, 72, 대학, 강원도 소재 o1 대학, 경기도 소재 o2, 73 대학, 대전 소재 h 대학, 충청도 소재 n 대학, 경상도 소재 7 대학 재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도구

최종연구단계에서는 두 차례 예비연구를 거쳐 7개 요인 59개 문항으로 확정된 사회적 유능성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우울과 불안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1977)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인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김재환 등(1980)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참고하였다. 원 검사도구는 9개의 하위영역,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는 우울과 불안 두 가지 심리적 변인만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척도는 13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기분이나 감정이 저조해지고 매사에 흥미와 의욕이 없어지는 절망감, 자살에 대한 생각 등 임상적으로 우울증과 일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불안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으로 이루어졌다. 두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각각 .90, .91로 나타났다.

절차 및 분석

사회적 유능성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에 유효한 982명의 자료를 무선으로

501부와 481부로 나누어, 501부의 자료는 SAS를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나머지 481부의 자료는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아래와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의 기초 문항분석, 구인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른 표본집단에 적용시켰을 때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두 차례 예비연구를 통하여 선정한 사회적 유능성 문항의 잠재적 요인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 시의 오차를 감안한 공통요인분석모형을 채택하였고, 공통분의 추정치로는 다중상관제곱치를 사용하였으며,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 단일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2) 초기요인구조를 산출하고, 고유값(eigen value), 스크리검사(scre test), 잔차상관행렬(residual correlations matrix)방법을 통해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3) 사회적 유능성 측정 영역별 진점수(true score)의 상관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진점수의 상관계수를 반영한 최종요인 구조를 산출하기 위하여 초기요인 구조에 대하여 사각회전(oblique)을 실시하였다.

4) 사각회전 후의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형태계수, 요인구조계수를 산출하였다.

5)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형태계수 및 요인구조계수를 분석하여 각 요인에 포함되어야 할 변수를 규명하고 각 요인에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별 고유분산과 공유분산을 계산

하였다.

6)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

7) 최종 확정된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의 하위영역별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요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의 차원에서 문항 측정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 α 계수와 Spearman과 Brown의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집단에 적용시켰을 때 동등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하여 잠재요인구조 모형의 안정성과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의 7개 잠재변수에 대한 57개 문항(59개 문항 중 요인분석과정을 거쳐 두 문항은 제외)의 측정변수들이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57개 측정변수는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한 57개의 문항을 가리킨다. 이 모형에서 각 측정변수의 간차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7개의 잠재변수들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9) 57개의 측정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설명량 R^2 값을 산출하여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분석하였다. 설명변량은 .29 ~ .63 사이로 나와 측정변수들 사이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시에 일부 측정변수들에 있어서 무응답 자료는 해당변수에 대한 전체표본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평균대체(mean substitution)방법을 이용하여 결측치(missing value)를 보완하였다.

10) 소수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최대우도추정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하여 추정된 모수치의 해석은 t 값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01수준에서 유의성 판정을 내렸다. 즉, t 값이 2.58보다 작을 경우 해당 모수는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11) 구조방정식모형의 평가에서 초기에 많이 사용하던 χ^2 검증방식은 표본 크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홍세희, 2000)을 감안하여 χ^2 검증방식과 더불어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표준적합도 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표준 적합도 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비교합치도(Comparative Fit Index: CFI)와 모형의 절대적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개략화 오차 평균(Root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산출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들이 우울 및 불안 등 개인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구인타당도검증의 일환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기초문항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었다. 문항분석의 기초작업은 각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편포도)와 첨도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과 문항 표준편차는 .7 ~ 1.14사이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특정한 응답에 몰려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문항별 편포정도를 나타내는 왜도 역시 모두 절대치 2.0보다 작아 심한 편포를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도 역시 절대치 3을 벗어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들은 이질적인 응답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표 2. 고유값과 누적분산비율

축소상관행렬의 고유값 총합: 27.49 (전체 공통분산)					
요인번호	1	2	3	4	5
고유값	10.92	3.60	3.26	2.04	1.79
고유값 차이	7.33	0.34	1.22	0.25	0.46
분산비율	0.40	0.13	0.12	0.07	0.07
누적분산비율	0.40	0.53	0.65	0.72	0.79
요인번호	6	7	8	9	10
고유값	1.33	1.12	0.85	0.72	0.65
고유값 차이	0.22	0.26	0.14	0.07	0.05
분산비율	0.05	0.04	0.03	0.03	0.02
누적분산비율	0.83	0.88	0.91	0.93	0.96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통요인분석을 통하여 축소상관행렬에 대한 단일주축분해 결과로 얻은 고유값과 누적분산비율은 표 2와 같다.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을 유효요인으로 할 경우 7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으며, 요인 6과 요인 7의 고유값 차이는 .26만큼 하락한 것에 비해 요인 7과 요인 8의 고유값 차이는 .14, 요인 8과 요인 9의 차이는 .07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 8부터 평균화 대열에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Gorsuch (1983)는 공통요인분석에서 누적분산 비율에 대하여 전체 분산의 “75-85%” 정도가 설명되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분산비율이 매우 크지 않는 한 더 이상 요인을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순목, 1995). 따라서 위의 표에서 일곱 개의 요인을 추출할 경우 누적분산비율이 88%가 되고 다음에 추가하는 요인의 설명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7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유능성의 평정기준을 설명하는

유효한 잠재적 요인이 7개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축소상관행렬의 고유값을 그래프에 점으로 나타내는 스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인 8부터는 수평축과 기울기가 비슷한 값을 보이므로 고유값의 크기는 평균화 대열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효를 7개로 한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동시에 7개 잠재적 유효요인의 적합성 여부를 요인분석 후 잔차상관행렬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비대각원소의 값이 .15정도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잔차상관행렬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00 ~ .05의 수준으로 나타나 7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분석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사회적 유능성 평정 척도의 최종 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회전방법으로는 요인들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기초요인구조에 대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축들이 변수모임들에 충분히 근접해서 지나갈 수 있는 회전각도를 찾아내고 사회적 유능성의 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변수 상호간 진점수들의 상

관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직각회전을 실시하고, 직각회전의 결과 각 하위영역에 포함된 대표적인 문항을 추출한 후, 이들 변수집단들간의 상관관계를 평균해서 요인들간 상관관계의 크기를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7개 하위 영역의 상관관계의 평균치와 신뢰도를 근거로 7개 하위 영역들간의 진점수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부록 1 참조).

사회적 유능성 평정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직각회전보다는 사각회전을 하되 회전 후 요인간 상관이 진점수 상관계수 추정값에 근접하여 가면서 구조의 구획(plot)에서 변수집단이 요인 축상에 가지런히 정렬되는 상태가 얻어지는 구조를 최종구조로 취하기로 하였다. 사각회전은 Harris와 Kaiser(1964)가 제안한 방식을 채택하여 사각회전을 위한 파라미터 Δ 로서 $HKP=.10$ 을 제공한 후, 요인간 상관과 사각회전 후의 그림을 관찰하면서 HKP 값을 감소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작업 결과 $HKP=.35$ 에서 요인간 상관이 진점수 상관계수 추정값과 근접하였으며, 회전 후의 요인축들이 변수집단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각회전 후 각 요인간 상관관계행렬은 부

록 2 참조).

사회적 유능성 평정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구조계수행렬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변수를 기준으로 해석하게 된다. 구조계수행렬(부록 3 참조)에 근거하여 요인부하량이 .35 이상인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을 분류하고, 각각의 해석에 사용될 요인별 문항 및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를 기초로 요인명을 부여하면 표 3과 같다. 이 과정에서 요인간의 구조계수를 고려하여 문항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2차 예비연구와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두 문항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요인 내에서 보다 일치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40%를 설명하며, 수업이나 모임에서 적극적이고, 솔선하여 타인을 이끌어 가며 주도성을 발휘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주도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3%를 설명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을 하고,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독립성’이라 명명하였다.

표 3. 요인해석에 사용된 문항 및 요인명

구분	요인명	분석에 포함된 문항	문항수
요인1	주도성	B6, B8, B15, B28, B33, B35, B47	7
요인2	독립성	B2, B9, B16, B22, B27, B36, B37, B41, B46, B55	10
요인3	민감성	B4, B11, B19, B25, B32, B38, B39, B48, B58	9
요인4	사교성	B1, B10, B21, B42, B43, B49, B51, B56	8
요인5	온정성	B3, B12, B18, B24, B29, B31, B44, B45, B57	9
요인6	자율성	B5, B13, B20, B23, B30, B40, B50, B52, B59	9
요인7	개방성	B7, B14, B17, B26, B34	5

요인 3은 전체변량의 12%를 설명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변화를 예민하게 지각하고, 주변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민감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변량의 7%를 설명하며, 활달하고 낮은 사람을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사교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전체변량의 7%를 설명하며, 타인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온정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전체변량의 5%를 설명하며, 자신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등 특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자율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7은 전체변량의 4%를 설명하며,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개방성’이라 명명하였다. 문항53번과 54번은 애매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요인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요인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부여받은 명칭이 포함하지 못하는 문항의 내용이 해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사회적 유능성 평정척도의 7개 하위요인의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별 고유분산과 공유분산을 분리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 주도성, 사교성, 온정성요인의 경우 공유분산이 고유분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이 중 ‘주도성’과 ‘사교성’ 요인은 공유분산이 고유분산보다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 두 요인이 나머지 요인들과 가지는 요인간 상관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개 요인의 요인별 고유분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적 유능성 평정척도에서 독립성(10.59%) 요인이 가장 큰 분산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감성(9.82%), 주도성(9.75%), 자율성(8.58%), 온정성(8.51%), 사교성(7.78%), 개방성(6.84%)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7개 요인 상호간에는 5.78%~18.37% 정도의 공유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7개 하위 영역에 속해 있는 문항들이 단일차원을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좋은 지표는 문항-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항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각 문항과 해당 하위영역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항-요인간 상관의 범위는 .30에서 .72사이로 나타나 각 요인내의 문항들이 상당히 동질적이고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은 해당요인이 측정하는 사회적 유능성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4. 요인별 고유분산, 공유분산과 백분율

구분	주도성	독립성	민감성	사교성	온정성	자율성	개방성
고유분산	2.68 (9.75)	2.91 (10.59)	2.70 (9.82)	2.14 (7.78)	2.34 (8.51)	2.36 (8.58)	1.88 (6.84)
공유분산	3.88 (14.11)	1.71 (6.22)	2.12 (7.71)	5.05 (18.37)	2.44 (8.88)	2.02 (7.35)	1.59 (5.78)

주. ()은 전체 공통분산에서 해당 분산의 백분율

표 5.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의 문항-요인간 상관

요인 구분	문항 번호	문항-요인 상관계수	문 항 내 용
요인 I 주도성 (7문항)	6	.56	나는 수업이나 모임에서 토론에 적극 참여한다.
	8	.65	나는 솔선하여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15	.74	나는 일을 주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28	.70	나는 모임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33	.72	대부분의 경우 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편이다.
	35	.36	친구들은 나를 잘 따른다.
	47	.61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요인 II 독립성 (10문항)	2	.48	나는 어떤 일에서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9	.37	나는 타이밍을 놓쳐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적이 많다.
	16	.49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까봐 내 주장을 펴지 못한다.
	22	.51	나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쉽게 상처받는다.
	27	.37	나는 자신을 잘 믿지 못한다.
	36	.56	나는 타인과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
	37	.56	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41	.44	나는 사람들과 어느 선까지 가까이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46	.30	상대방이 나의 부탁을 거절하면 무시당한 기분이 든다.
55	.56	나는 쉽게 위축된다.	
요인 III 민감성 (9문항)	4	.64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변화를 잘 알아챈다.
	11	.61	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
	19	.62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이면에 담긴 뜻을 잘 알아차린다.
	25	.51	나는 주변 사람에게 나타난 사소한 변화라도 잘 보아낸다.
	32	.50	나는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려준다.
	38	.44	나는 어색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줄 안다.
	39	.64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한다.
	48	.42	나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화주제를 고를 수 있다.
58	.37	나는 자신이 그때그때 느끼는 기분상태를 잘 알아차린다.	

표 5. 계속

요인 구분	문항 번호	문항-요인 상관계수	문 항 내 용
요인IV 사교성 (8문항)	1	.46	나는 활발한 편이다.
	10	.61	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21	.56	나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한다.
	42	.60	나는 다양한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43	.45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49	.43	나는 사람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51	.34	나와 성향이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는 많다.
	56	.65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잘 적응한다.
요인V 온정성 (9문항)	3	.39	나는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다.
	12	.45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프다.
	18	.49	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24	.49	나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할애한다.
	29	.41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그녀)를 이해할 수 있다.
	31	.49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알아준다.
	44	.39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본 적이 거의 없다.
	45	.35	나는 타인의 실수를 용납할 줄 안다.
57	.43	친구들은 힘들 때 나를 많이 찾는다.	
요인VI 자율성 (9문항)	5	.58	나는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
	13	.53	나는 놀 때는 놀더라도 내 할 일은 게을리 하지 않는다.
	20	.61	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23	.48	나는 타인에게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이다.
	30	.53	나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편이다 .
	40	.51	나는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진다.
	50	.45	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52	.45	나는 친구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킨다.
59	.47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한다.	
요인VII 개방성 (5문항)	7	.64	사람들에게 내 심정을 잘 말하는 편이다.
	14	.61	나와 견해차이를 보이는 그룹에서도 내 역할을 해나간다.
	17	.61	나와 성향이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는 많다.
	26	.3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즐겁다.
	34	.43	나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표 6.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 모형의 적합도 평가 (N=481)

χ^2	df	p	CFI	NFI	NNFI	RMSEA	RMSEA 신뢰구간
4005.900	1518	.000	.971	.954	.968	.058	(.056, .061)

501명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7요인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 다른 481명의 자료에 적용시켜 교차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57개 측정변수에 대한 481명의 원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은 11회에 완결되었으며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간의 경로계수(λ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한 사회적 유능성의 7요인 모형의 값과 적합도 지수들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 값이 4005.900 ($df=1518$)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지만 χ^2 검증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이 클 ($N>200$) 경우 모형을 기각하기 쉬운(배병렬, 2002) 단점을 감안하여 χ^2 검증과 더불어 모형의 기타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결과 모형의 절대적적합도와 상대적적합도를 나타내는 $CFI=.971$, $NFI=.954$, $NNFI=.968$, $RMSEA=.058$ 로 나타나 모형을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권장되는 임계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지수의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다른 유사한 표본을 이용해 동일한 이론모형을 반복적으로 평가해도 90%의 경우 추정된 $RMSEA$ 의 값은 .056에서 .061사이일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 7요인 모형은 비교적 안정적인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7요인 이론모형은 수집한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성 평정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살펴보면 주도성은 .86 독립성은 .80, 민감성은 .83, 사교성은 .81, 온정성은 .76, 자율성은 .82, 개방성은 .7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문항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pearman-Brown의 반분신뢰도 계수를 살펴보아도 .70 ~ .84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과 우울 및 불안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유능성이 낮을수록 기분이나 감정이 저조해지는 등 우울성향이 높으며, 긴장, 초조,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 참조).

구체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들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수로 하고 우울 및 불안점수를 각각 준거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유능성으로 우울을 예측하는 모형은 전체적으로 2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을 예측하는 모형은 전체적으로 2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참조).

종합논의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 탐색과 응용에 대한 논의는 아래의 네 측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암시적 이론의 접근방법으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유능성 특성을 수집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도성, 독립성, 민감성, 사교성, 온정성, 자율성, 개방성 등 7개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의미를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보면 ‘주도성’요인은 Riggio(1986, 1989)의 사회적 유능성의 6요인 모형에서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요인과 유사하였고, ‘민감성’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으로 Cegala 등(1982)의 사회적 유능성 3요인 모형에서 첫 번째로 추출된 요인이었다. ‘사교성’요인과 ‘온정성’요인은 Schaefer(1961)의 연구에서 ‘외향’과 ‘애정’요인과 유사하였고, ‘자율성’요인은 Baumrind(1973)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던 결과였다. ‘개방성’요인도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었는데, Weinstein (1969)연구에서는 ‘개방적인 능력’으로, Buhrmester 등(1988)의 연구에서는 ‘자기노출(self-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 대학생과 심리학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상담전문가, 임상전문가, 조직심리/산업심리 전문가)을 대상으로 진행한 Schneider(199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두 연구에서 추출한 하위 구성요인 중 부분적으로 요인의 의미와 포함된 문항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여섯 요인(주도성, 민감성, 사교성, 온정성, 자율성, 개방성)은 Schneider(1992) 연구에서 추출된 여섯 요인(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통찰, 외향성, 따뜻함, 사회적 성숙, 사회적 개방성)과

내용상 대체로 유사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에는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로부터 대학생들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개념은 동, 서 문화권에서 비슷한 내용을 지닌 범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암시적 이론의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에는 위에서 기술한 ‘범문화적’인 요인 외에도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도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바로 독립성 요인이다. 독립성 요인은 사회적 유능성 변량의 10.59%로 7개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독립성 요인은 기타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권보연(1999)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을 알아보는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타인과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열중하는 헌신성(overly nurturant)과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간섭성(intrusive)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임희섭(199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한국 전통문화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로 ‘의존성과 사대주의’(17.1%)가 1위로 지적되었고, 외래문화(서구문화)에서 바람직한 가치로 ‘독립성과 개척정신’(25.1%)이 1위로 나타났다.

‘독립성’이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추출된 점은 한국 대학생들이 독립성과 개인주의를 추구하려는 사회,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는 결

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도출해낸 결과이기에 앞으로 넓은 범위에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수행하여 일관되게 ‘독립성’ 요인이 추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유능성의 7개 하위영역은 우울특성과 모두 유의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적 유능성이 낮을수록 감정이 저조해지고, 매사에 흥미가 없어지며, 의욕이 없어지는 등 우울성향이 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철수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Bell-Dolan et al., 1993; Blechman et al., 1986; Mazur et al., 1992)과 일치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의 7개 하위영역은 불안수준과도 모두 유의하게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도 선행연구들(Blechman, 1986; Leitenberg, 1990)과 일치성을 나타냈다. Blechman 등(1986)은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청소년들의 17%가 불안한 특성을 보였고, Leitenberg(1990)은 불안한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철수, 고립, 의사소통에 대한 염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수줍음, 사회적 억제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서투르며(Hope et al., 1989; Strahan et al., 1998), 타인과의 시선접촉을 줄이고, 만남을 회피하려고 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Check et al., 1981; Clark et al., 1975, Leary, 1983)고 보고한 연구들도 모두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추출해낸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들은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상담장면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내담자들

이 가장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주 호소문제 중의 하나이며(Horowitz, 1996), 한국에서 대학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들의 주 호소 영역 중의 하나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Y대학교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상담소를 방문한 내담자들의 호소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한 비율이 1999년 19.0%에서 2002년에는 27.0%로 증가하여 심리적응문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 연구결과는 앞으로 대학교 상담현장에서 적용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 평정 문항은 아직 표준화된 진단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과 비교해서 사회적 유능성의 과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담과정에서 7개 요인별 점수를 개인별로 도표화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영역과 높게 나타난 영역을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 상담소에서 대인관계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본 연구에서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대학에서의 상담은 개인상담이었고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가진 학생’의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대학상담에 새로운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장호(1996)는 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정신의학적 모형’ 또는 ‘심리분석적 모형’에서 ‘교육적 모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상담실에 오는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학습심리학 등의 영

향으로 상담실 밖의 상황의 학급, 씨클, 기숙사 생활, 가족환경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며; 상담의 목적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갔으며, 상담내용에 있어서도 학습방법의 교육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심한 문제를 가진 극소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능한 한 전체 대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자의 역할이 더 이상 문제나 증상에 대한 치료나 해결이 아닌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최근의 변화와 더불어 볼 때, 상담자들은 상담소를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제점을 비추어 보다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출발하여 대학상담소나 상담관련 종사자들은 본 연구에서 추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특성을 가지고 인간관계훈련이나 신입생 세미나(freshman seminar)의 내용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구순주 (1996).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보연 (1999).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경희 (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51.
- 김재환, 김광일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III. 정신건강연구, 2, 278-311.
- 노명희 (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영, 윤진 (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44-63.
- 박현순 (1999). 10년간 대학생들의 상담 호소문제 변화 추세, 학생연구, 33(1), 9-18.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전: 대경.
- 연문희 (2000).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서울: 양서원.
- 오운자 (2002). 2000학년도 학생생활연구소 이용 학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83-199.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미리 (1995).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복합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5), 89-98.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1. 서울: 학지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해, 고윤주 (1999).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37(3), 201-219.
- 이장호 (1996).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나남출판.
- 정영숙 (1992). 가족의 사회,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5(1), 104-13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혜정, 김경희 (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51.
- Altman, E. O., & Gotlib, I. H. (1988). The social behavior of depression children: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29-44.
- Anderson, S., & Messik, S. (1974). Social competenc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82-293.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7, 3-46.
- Bell-Dolan, D. J., Reaven, N. M., & Petersen, I. (1993). Depression and social functioning: A multidimensional study of the linkages. *Journal of Child Clinical Psychology*, 22, 306-315.
- Blechman, E. A., McEnroe, M. J., Carella, E. T., & Audette, D. P. (1986). Childhood compete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223-227.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Burns, D. D., Sayers, S. L., & Moras, K. (1994). Intimate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s there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33-1043.
- Cegala, D. J., Savage, G. T., Brunner, C. C., & Conrad, A. B.(1982). An elaboration of the meaning of interaction involvement: Toward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concept. *Communication Monographs*, 49, 229-248.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220-239.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 36, 211-221.
- Cowen, E. L., Person, A., Barbikian, H., Izzo, L., &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 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 Curran, J. P. (1977). Skill training as an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heterosexual-social anxiet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4, 140-157.
- Epstein, S., & Meiler, P. (1989). Constructive thinking: A broad coping variable with specific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32-350.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23-340.
- Forster, S. L., & Ritchey, W. I. (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25-638.

- Hall, E. T. (2002). 숨겨진 차원. (최효선 역). 서울: 한길사.
- Hall, E. T. (2000). 침묵의 언어. (최효선 역). 서울: 한길사.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J. Mussen & E. M.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ope, D. A., Gansler, D. A., & Heimberg, R. G. (1989). Attentional focus and causal attributions in social phobia: Implications from soci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49-60.
- Horowitz L. M., & Vitkus. J. (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43-469.
- Kennedy, E., Spence, S. H., & Hensley, R. (1989).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dep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amongst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561-573.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eitenberg, H. (1990).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Plenum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thur, S. R., & Rutherford, R. B. (1996). Is social skills training effective for stud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research issues and needs. *Behavioral Disorders, 22*, 21-28.
- Mazur, E., Wolchik, S. A., & Sandler, I. N. (1992). Negative cognitive errors and positive illusion for negative divorce events: Predictors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523-542.
- Muuss, R. (1986). Adolescent eating disorder: Bulimia. *Adolescence, 21*, 257-267.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iggio, R. E. (1986). Assessment of basic social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649-660.
- Riggio, R. E. (1989).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chaefer, E. S. (1961).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6*, 345-346.
- Schneider, R. J. (1992). *An individual-differences approach to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Smith, T. W., Ingram, R. E., & Brehm, S. S. (1983). Social anxiety, anxious self-preoccupation, and recall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6-1283.
- Sternberg, R. J. (1991). *신지능이론.* (하대현 역). 서울: 교문사.
- Sternberg, R. J., Conway, B. E., Ko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ttitude and Social Cognition, 41*,

- 37-55.
- Strahan, E. Y., & Conger, A. J. (1998). Social anxiety and its effects on performance and percep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4), 293-305.
- Strigler, J. W., Smith, S., & Mao, L. W.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Sung, H., Lubin, B., & Yi, J. (199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youth depression adjective check list(Y-DACL). *Adolescence*, 27, 527-533.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Vaughn, S., Hogan, a., Kouzekanani, K. B., & Shapiro, S. (1990). Peer acceptance, self-perceptions, and social skills of learning disabled students prior to identifi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101-106.
- Wagner, R. K., & Sternberg, R. J. (1985). Practical intelligence in real-world pursuits: The role of tacit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436-458.
- Wagner, R. K., & Sternberg, R. J. (1986). Tacit knowledge and intelligence in the everyday world. In R. J. Sternberg & R. K. Wanger (Eds.), *Practical intelligence: nature and origins of competence in the everyday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stein, E. A. (1969).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D. A. Gols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 Zigler, E. F., & Trikett, P. K. C. (1978). I.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 789-798.

원 고 접 수 일 : 2004.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 20
게 재 결 정 일 : 2005. 2. 3

The Construct and Utility of Social Competence in Korean College Students

Song Mei Cui

Moonhee Yon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nstructs of social competence by analyzing the predicted behaviors of social competence that are conducted in real situations. Open-ended questions were asked to 78 undergraduate, 20 graduate students and 20 professionals in order to identify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are considered to have high levels of social competence. The survey with collected items from open-ended questions were distributed to 1,700 students from 14 colleges as subjects.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manifested in the form of social competence were summarized by the 7 latent factors; leadership, independency, sensitivity, sociability, warmth, autonomy and opennes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sessed the degree to which the plausibility of factor models was empirically confirmed and overall fit measures(CFI, NFI, NNFI, RMSEA) indexes showed the satisfying suitability of the model. All of the seven construct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psych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Implications of social competence in Korea, preventive intervention of college student counseling and school guidance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competence, implicit theory approach,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부록 I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 진점수의 상관계수 추정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1	1.00						
요인 2	.19	1.00					
요인 3	.23	.11	1.00				
요인 4	.40	.20	.16	1.00			
요인 5	.17	.08	.22	.27	1.00		
요인 6	.18	.17	.21	.21	.16	1.00	
요인 7	.26	.09	.06	.21	.17	.07	1.00

부록 II

사각회전 후 사회적 유능성의 각 하위요인간 상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1	1.00						
요인 2	.21	1.00					
요인 3	.20	.10	1.00				
요인 4	.44	.26	.23	1.00			
요인 5	.15	.03	.28	.33	1.00		
요인 6	.14	.22	.22	.28	.16	1.00	
요인 7	.29	.05	.05	.24	.18	.07	1.00

부록 III
사각회전 후의 요인 구조계수(상관계수)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B28	.77*	.20	.26	.38	.17	.06	.29	B49	.11	.29	.09	.54*	.31	.17	.15
B15	.77*	.20	.19	.31	.16	.29	.26	B53	.21	.27	.34	.54*	.30	.26	.10
B33	.77*	.23	.28	.29	.21	.16	.24	B43	.20	.19	.03	.49*	.32	.07	.10
B8	.71*	.12	.12	.32	.08	.08	.17	B21	.31	.29	.21	.58*	.24	.25	.28
B47	.68*	.31	.11	.29	.08	.08	.17	B51	.17	.05	.12	.41*	.29	.14	.01
B6	.61*	.20	.15	.27	.15	.32	.17	B1	.32	.24	.13	.54*	.28	.08	.37
B54	.59*	.31	.19	.21	.11	.07	.05	B24	.10	.04	.15	.31	.57*	.17	.15
B35	.40*	.07	.30	.32	.31	.10	.17	B44	.06	.07	.06	.15	.48*	.17	.06
B36	.13	.63*	.03	.16	-.05	.16	-.07	B18	.17	-.06	.16	.28	.56*	.08	.31
B22	.04	.58*	-.07	.13	-.01	.12	-.07	B31	.21	.10	.21	.31	.56*	.16	.21
B55	.30	.66*	.11	.37	.17	.25	.08	B12	.09	-.08	.21	.05	.50*	.19	.25
B37	.15	.62*	.11	.23	-.05	.21	-.11	B3	.13	-.06	.08	.17	.46*	.10	.13
B41	.08	.50*	.14	.04	.04	.12	-.13	B29	.16	.06	.35	.26	.50*	.14	-.03
B16	.31	.54*	.07	.16	.02	.12	-.01	B45	-.11	.08	.19	.24	.42*	.12	.07
B2	.21	.53*	.06	.19	-.06	.27	.02	B57	.29	.09	.32	.35	.49*	.23	.24
B9	.16	.44*	.14	.06	-.06	.09	.02	B5	.17	.15	.19	.17	.16	.68*	.01
B46	-.11	.35*	-.06	.02	.25	.04	-.12	B13	.10	.13	.19	.15	.16	.64*	.17
B27	.09	.40*	.09	.16	.13	.31	-.00	B20	.21	.18	.20	.31	.11	.69*	.17
B4	.16	.05	.74*	.14	.23	.18	.01	B40	.09	.11	.20	.20	.21	.58*	-.10
B11	.19	.09	.73*	.16	.19	.16	.06	B23	.08	.22	.22	.25	.21	.51*	-.17
B19	.14	.14	.72*	.18	.21	.20	.20	B52	.04	.21	.18	.21	.27	.46*	-.05
B39	.16	.04	.72*	.19	.29	.23	.03	B30	.35	.31	.21	.34	.16	.52*	.12
B32	.18	.06	.65*	.27	.32	.16	.12	B50	.20	.20	.27	.35	.10	.49*	.13
B25	.18	.02	.55*	.22	.27	.22	.13	B59	.14	.35	.23	.32	.07	.48*	.05
B58	.11	.13	.39*	.28	.08	.19	.13	B17	.19	.01	.13	.22	.21	.07	.74*
B48	.31	.27	.40*	.29	.16	.14	.12	B7	.36	-.01	.04	.23	.15	.08	.71*
B38	.28	.16	.39*	.29	.28	.00	.17	B14	.27	-.14	.02	.22	.19	.03	.68*
B42	.35	.10	.09	.68*	.16	.22	.17	B34	.20	-.02	-.04	.14	.06	-.02	.56*
B10	.33	.12	.13	.70*	.24	.23	.22	B26	.35	.08	.17	.38	.28	.04	.40*
B56	.31	.27	.26	.67*	.28	.22	.30								

부록 IV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과 우울 및 불안의 상관(N=481)

	주도성	독립성	민감성	사교성	온정성	자율성	개방성
우울	-.35***	-.51***	-.19***	-.33***	-.21***	-.27***	-.11*
불안	-.27***	-.47***	-.15**	-.24***	-.15**	-.16***	-.11*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V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의 예측력에 대한 검증(N=481)

준거변수	예측변수	B	β	t	R	R^2	R^2 증분	F(모형)	F(증분)
우울	독립성	-.64	-.45	-10.39***	.51	.26	.26	160.12***	160.12***
	사교성	-.22	-.16	-3.61***	.53	.28	.02	88.68***	13.03***
불안	독립성	-.60	-.46	11.15***	.46	.22	.22	125.69***	25.69***
	개방성	-.10	-.09	-2.29*	.47	.23	.01	66.04***	5.23*

* $p < .05$, ** $p < .01$, *** $p < .001$

